韓國의 甲冑 (4)

—出土遺物中 鐵製甲冑를 中心으로—

李 康 七

머릿말

우리나라에서 古代 軍事關係 裝備를 어느 程度 헤아려 보자면 文獻上에 나타난 資料도 있으려니와 그래도 그 實物을 通해 期待를 걸어 봄직한 것은 亦是 出土 遺物을 꼽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지난 一九七二年 봄 釜山東亞大學校에서 咸陽上栢里 古墳群의 發掘과 또한 一九七八年 가을 大邱啓明大學에서 高靈池山洞地區 發掘調査로 因하여 우리나라의 軍事防禦裝備의 하나인 鐵製短甲의 모습을 一部나마 把握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여기는 바이다。 勿論 同一視되는 短甲이 일찌기 釜山 東萊 連山洞에서 出土된 事實도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日人 蒐集家에 依해 如何히 處理하였는지 지금은 消滅된 狀態이기 때문에 比較치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는 터이다。

그래서 本稿는 그동안 各大學博物館에서 蒐集所藏된 一部遺物과 發掘調査된것 중에서 鐵製인 투구와 短甲만을 간추려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一、투 구

가、鐵製 투구 高麗大學校博物館所藏(所藏番號一六六二號)

이 투구는 鐵藏로서 鐵板을 長方形으로 裁斷하여 이를 주름식으로 構成製造하였는바 그 保存狀態는 매우 좋은 便이다。 그의 總높이는 二十四·五센치이며 左右지름이 二十二·三센치 前後지름이 二十五·四센치이다。 그리고 해가리개 즉 챙의 너비는 十·二센치로 比較的 넓은 形態로 造成되었는바 이를 좀더 詳細히 部分別로 區分한다면 頂蓋裝飾部、頂蓋部、上半部、中半部、下半部、前庇部、錏部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그림 一、二참조)。

(1) 頂蓋裝飾

鐵板을 위로 도톰하게 둥굴려 그 中央에 幹柱를 세웠는데 鐵板의 지름은 十一센치이다。 幹柱의 길이는 五·七센치이고 그의 지름은 一센치로서 그 속에는 이 幹柱를 固定시키는 멈치쇠를 連結하여 頂蓋 鐵板과 固定 處理하였다。

(2) 頂 蓋

頂蓋鐵板은 左右지름 十四센치 前後지름 十四·五센치로서 上半部 주름쇠 길이 五·四센치의 片鐵과 連結固定하였는바 이는 內部와 外面 사이에 끼워 두편에 하나씩 광두정(鋲)으로 固定시켰다。 그런데 이 주름片鐵은 모두 四十四片이고 頂蓋部分에 박은 광두정은 十九個에 比해 아래 上半部의 것은 二十二個로서 그 配列方法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주름식으로 組立한 까닭이다。

(3) 上半部

주름片鐵에 이어 上半部는 四·五센치 너비의 둘림판을 中半部 주름片鐵과 連結하였는데 이는 오른쪽에서 마무리 하였다。 固定方式은 頂蓋處理方法과 같이 內部쪽에도 亦是 表面과 같이 連結處理하였는데 廣頭釘 施釘 方式은 上半部 주름철 連結方法과 同一하다。

(4) 中半部

주름片鐵은 上半部 規格보다는 若干 짧은 模樣으로 그 높이는 三·二센치 인바 이는 모두 四十六個로 역시 주름식으로 포개 組立되었는데 이는 向해서 오른쪽으로 포개진 模樣이다。

(5) 下半部

머리가 들어가는 最下段이다。 이는 너비 三·六센치의 둘림판으로 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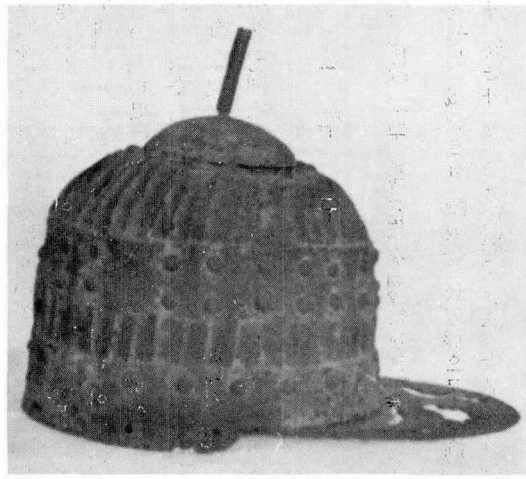


圖 1 철제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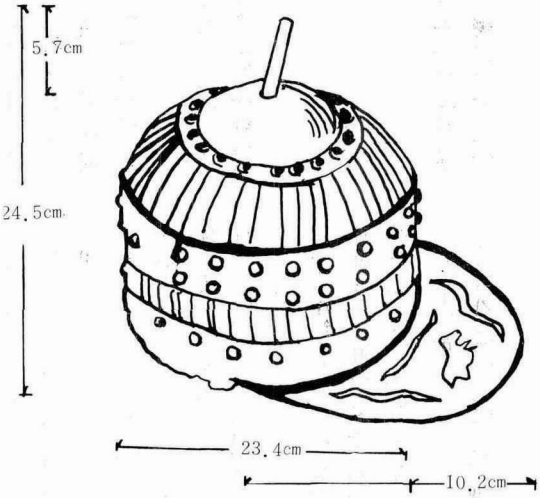


圖 2 철제투구 실측도

나 있는 것으로보아 목가리개를 連結하였던 곳으로 판명된다。

나、鐵製 투구 高麗大學校博物館所藏 (所藏番號 五 一三八號)

이 투구도 鐵製이다。 模樣과 製法은 前記「가」투구와 別差없으나 다만 正面에 方形鐵板과 左右側과 後部에는 各各 舌形의 角鐵이 덧대어진것이 差가 있는 것인바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圖 三、四 참조)

(1) 頂蓋裝飾

鐵板을 위로 도톰하게 둥굴려 二重으로 덮었다。幹柱는 지름이 六·六센치로 內部가 空間이 되게 鐵板을 둥글게 말어 그 正中에는 細鐵柱를 頂蓋鐵板을 뚫어 幹柱를 固定시켰고 따라서 그 위에는 무슨 裝飾이 있었을 것이나 現在는 損傷이 되어 알길이 없다。

(2) 頂 蓋

頂蓋는 左右지름이 十·七센치 이고、前後지름이 十二센치로 左右보다 若干 넓은 편이다。그리고 이는 上半部 주름쇠와 連結이되어 三十個의 廣頭釘으로 固定하였다。

(3) 上半部

頂蓋板에 물려 連結된 片鐵은 길이 五·三센치로서 이는 모두 三十個인데 向해서 右側에 포개진 모양이다。즉 주름식으로 頂蓋쪽은 좁고 아래쪽은 약간 넓은 形態로 組立되어 四·五센치의 中半部 二重帶鐵에 물려 廣頭釘으로 連結하였다。

(4) 中半部

中半部 帶鐵 上部에는 上半部 주름식 片鐵이 물려 廣頭釘이 片鐵二個 面正中에서 連結마무리 하였고 따라서 內部로 같은 너비의 둘림 鐵板을 둘리었다。여기에는 주름쇠 片鐵을 끼워 주름鐵板 三個또는 네개에 하나씩 廣頭釘을 밝았는데 모두 二十一個가 施釘되었다。

(6) 前 庇

해가리개는 前面正中을 起點으로 左右에 連結시켰는바 下半部와의 連結된 총길이는 二十七·五센치이고 正中의 지름이 六·五센치이다。그리고 正中의 안쪽과 左右에는 蛇絞이 또 正中의 바깥쪽에는 馬絞이 向해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形像을 透彫하였는바 그의 規格은 다음과 같다。

ㄱ、蛇絞의 길이 中 九·二、左 九·五、右 八·五

ㄴ、馬絞의 길이 六·七 너비 二·二(單位는 센치)

(7) 錏 部

앞면 해가리개에 이어 목가리개를 連結한 部分은 亦是 鐵板을 一·九센치의 너비로 둘리었고 右側 해가리개 지점에서 三센치 떨어져 구멍이 있고、이어 五·八、七·八、七、七·五、八·五센치 間隔으로 못구멍이

에 하나 꼴로 박혔고 따라서 下部에도 같은 間隔으로 施釘하였으며 그 中央 即 上下 廣頭釘 사이로 같은 못으로 드문 드문 박았다。 그리고 이 帶鐵下部에는 三十二片의 片鐵이 주름식으로 直立되어 連結되었다。

(5) 下半部

最下段 즉 머리가 들어가는 곳으로 五센치 너비의 二重鐵板으로 돌리고 위 주름片을 그 속에 물려 連結하고 廣頭釘을 돌아가며 施釘하였다。 그리고 正面에는 해가리개 위로 三·八센치 떨어져서 높이 十센치 너비 十三센치의 鐵板으로 上部는 左右를 모를 재고 下部는 直角으로 하여 左右 下部에서 二·五센치 程度 위로 廣頭釘을 施釘하였다。 그리고 左右와 後面에는 舌形의 鐵板角을 세웠는데 左右에 세운것은 높고 後便에 세운것은 낮은 모양인데 그의 規格은 다음과 같다。

ㄱ、右角 길이 十七·七센치、너비 三·七센치
ㄴ、左角 〃 十六·九 〃 、〃 三·九 〃
ㄷ、後角 〃 十四 〃 、〃 二·三 〃

(6) 前 庇

해가리개는 반달형이며 그 正中의 너비는 九·五센치로 안쪽을 위로 꺾어 올린 모양이다。 即 ㄴ형으로 접어 左右 끝부분은 左便 길이 三·八센치 높이 二센치이며、右便 길이 三센치 높이 二센치로 꺾어올려 下半部 帶鐵에 接着하여 廣頭釘으로 固定하였다。

다、鐵製 투구 高麗大學校博物館所藏(所藏番號 九三五號)

이 투구는 上尖下廣式 즉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퍼진 모양이다。 이는 前記「가」「나」의 鐵製투구 製法에 比에 매우 單調롭다。 이는 모두 네 쪽의 표면 火頭形 鐵板과 內部의 舌形 鐵板을 세워 組立하고 頂盖와 해가리개 그리고 목가리개를 貼付한 形式으로 構成하였는데 그의 部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頂 盖

頂盖는 四葉形 鐵板으로 各邊의 規格이 一定하지 않고 差가 있는 것

圖 3—1 철제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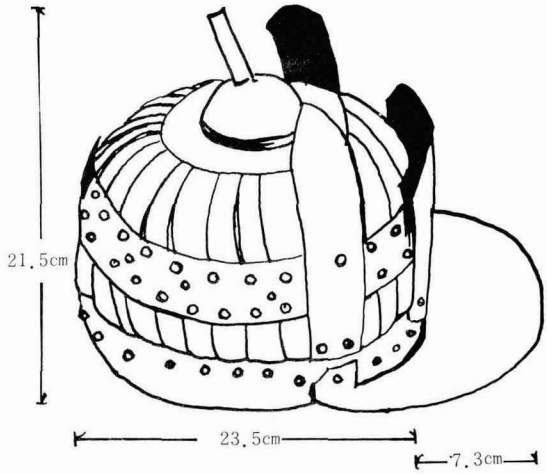


圖 3—2 철제투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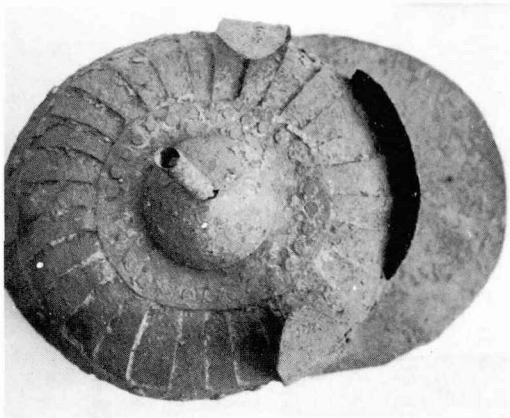


圖 4 철제투구

으로 前面이 七·九센치 後面이 七·六센치로 ○·三센치가 좁고 또한 左側이 七·九센치이며 右側이 八·四센치로 ○·五센치가 넓다。 그리고 각 모서리는 懸魚模樣이고 그를 連한 邊은 菱形으로 處理하였으며 네 모서리에 철제못으로 固定하였다。

(2) 鉢

表面 前後左右에 세운 火頭形 鐵板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模樣으로 즉 그 中央을 起點으로 上下에는 左右로 火頭을 形成하였으나 그 規格은 一定하지 않다。 그래서 그 치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前面 上 八·四센치、下 九센치

나、後面 〃 七·五 〃、〃 一○〃

다、左側 〃 七·五 〃、〃 一○〃

라、右側 〃 七·八 〃、〃 九·八〃

한편 안으로 겹쳐진 鐵板은 대개 九·二센치의 너비로 위로 올라가며 좁아진 모양인데 이를 포개 接着하여 表面 突出한 部分마다 鐵釘으로 固定하였다。

(3) 前庇

해가리개의 둥굴린 部分 即 下半部와 接着한 곳은 延 二十三·五센치이고 앞지름이 五·二센치로서 亦是 鐵製반달形이나 아무 紋樣도 없다。 貼付하는 部分은 ㄴ字形으로 꾸부려 廣頭釘으로 貼付하였는데 左右 마무리 部分은 모양없이 그대로 切斷하였다。

(4) 錣部

下半部 左右側 해가리개를 連한 後部에는 목가리개를 貼付하게 죄었는바 이는 해가리개 끝에서 三센치 程度 떨어져 못구멍이 一、七센치 間隔으로 痕迹이 있고 또한 큰 廣頭釘이 左右側에 各各 한개와 後面正中을 起點으로 六센치와 七센치 間隔으로 박혀 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목가리개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였음을 짐작 하게 한다(圖 五、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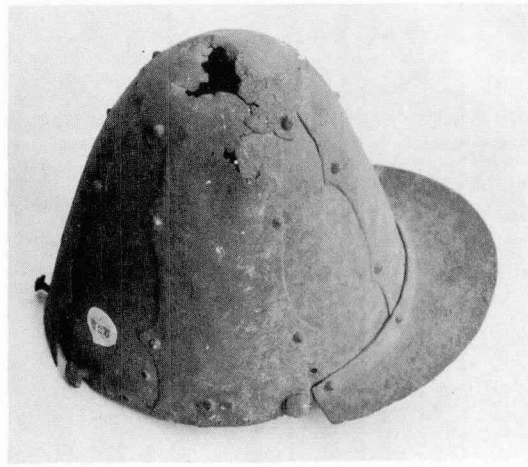


圖 5 철제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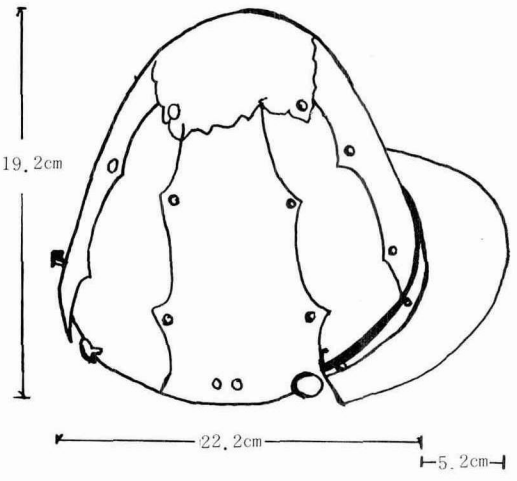


圖 6 철제투구 실측도

라、鐵製 투구 崇田大學校基督故博物館所藏(所藏番號 未附與)

鐵製로서 총 높이는 二十一센치이고 밑지름도 二十一센치이며 그의 製法은 前記「가」의 高麗大學校 博物館所藏 투구와 對等하나 다만 帶鐵의 施釘이나 해가리개의 紋樣이 差가 있을 따름인바 그의 部分的 製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頂盖裝飾

半球形의 鐵板正中에는 길이 五센치 程度의 鐵板을 둥굴려 세웠는데 그곳에는 무슨 裝飾이 있었을 것이나 現在는 痕迹도 없어 알 길이 없다。

(2) 頂盖

半球形의 頂盖鐵板은 그 둥굴림이 매우 도톰하고 매끈하다。 밑 部分은

帶鐵에 끼우기 爲해 外反시켰고、그 下部 즉 上半部 주름鐵片을 連結시키는 帶鐵은 上下의 물리는 것을 表面과 內部 것이 있어 위의 頂蓋鐵과 아래 주름片鐵을 물려 그 中間地點에서 廣頭釘으로 固定하였는데 못은 모두 十三個이다。

(3) 上半部

頂蓋帶鐵밑으로 連結되는 片鐵은 모두 三十八片을 하나 하나 오른쪽으로 포개 주름식으로 組成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윗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게 하여 帶鐵사이에 물렸다。

(4) 中半部

上下의 片鐵을 固定시키는 帶鐵도 亦是 두겹으로 되어 上下의 片鐵을 물려 廣頭釘으로 固定하였다。그 廣頭釘은 윗편이 二十二個이고 아랫편이 三十五個인데 그 中間에도 다시 한줄을 上下것보다 조금 작은 못으로 돌려 박았다。

(5) 下半部

下段 주름片鐵에 이어 下半部 帶鐵도 안팎 二重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그帶鐵 正中을 通해 二十八個의 廣頭釘을 돌려 박았다。

(6) 前庇

해가리개는 반달형으로 그 안쪽 즉 下半部가 接着되는곳 邊의 左에서 右로 連하는 길이는 二十六센치이고 中央지름은 五·五센치이다。外邊 안쪽으로 三角形을 透彫하여 帶線을 이루었으며 그 안 全面에도 無秩序하게 三角形 무늬를 그리고 正中에는 左右로 퍼지는 모양으로 透彫되었다。(圖 七、八 참조)

圖 7 철제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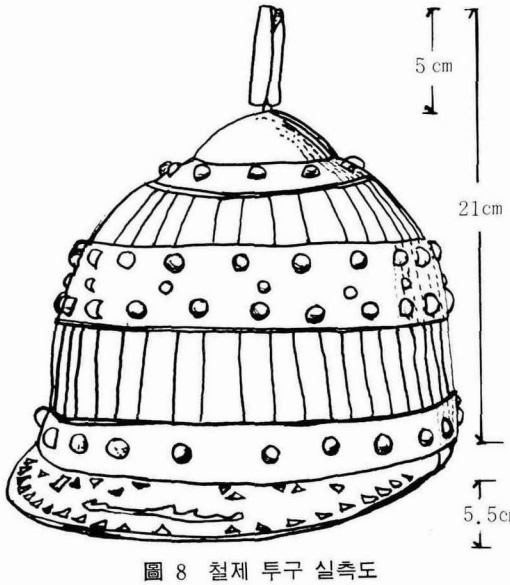


圖 8 철제 투구 실측도

마、鐵製 투구 崇田大學校基督敎博物館所藏(所藏番號未附與)

銹가 甚해 中央部가 切斷되어 두개가 되었다。그의 맨드리는 前記「가」「라」의 製法과 別差가 없는 것으로 짐작이 가고 다만 頂蓋裝飾中 半球形이 幹柱에 끼워졌으며 해가리개에는 세모 또는 네모의 무늬가 透彫되었다。또한 上·中半部의 주름식 片鐵은 녹이 심해 헤아릴수 없고 帶鐵의 廣頭釘 狀態도 判別이 困難하다。寫眞은 처음 蒐集할 當時 梅山 金良善館長께서 撮影하여 現在까지 傳存되나 寫眞으로도 判別이 困難하여 매우 안타깝다。(圖 九 참조)

바、鐵製 투구 崇田大學校基督敎博物館所藏(所藏番號未附與)

鐵製로서 마치 계란을 절반 잘라세운 듯한 模樣이다。높이는 二十센치이고 지름이 二十六센치로 內部附屬은 모두 痕迹도 없다。頂蓋部分이 若干 損傷되었고 下半部쪽도 部分的으로 傷해 있다。(圖 一〇 참조)

사、鐵製 투구 國立慶州博物館所藏(雁鴨池出土)

이 투구는 一九七六年 五月 十日부터 同年 十二月 三十日까지 慶州地區 雁鴨池 發掘때 東岸 갯벌에서 出土된 것이며, 그 形態는 鉢의 頂蓋에는 小半球形을 씌운 것으로 그의 총 높이는 二十·八센치이고 지름은 二十三센치이다。그의 맨드리를 살펴보면 鐵板을 둥글려 左右에 대고 正中 前後를 連結하였는데 이는 一·二센치 程度를 포개 鐵釘으로 마무리 하였다。그리고 頂蓋에는 同一한 鐵板으로 半球形을 만들었는데 後側上部를 죽여 모를 만들고 그 正中에는 두개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경 어떠한 裝飾이 있었음직 하다。그리고 下半部 즉 머리가 들어가는곳 左右 耳部 後로부터 玉枕板에 이르는 곳에 높이 二·五센치 以下로 구멍이 雙條로 뚫린 것으로 보아 이는 목가리개(錏)의 連結地點으로 推測이 간다。그리고 앞면 邊을 連해 單條로 구멍이 뚫려 있는것은 해

圖 9 철제투구

가리개의 貼付 痕迹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둘림 裝飾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해 본다。(圖 十一 참조)

아、鐵製 투구 大邱啓明大學博物館所藏(高靈地區出土)

이 투구는 一九七八年 八月 十二日부터 同年 一〇月末까지 大邱啓明大學 發掘調査團 金鍾徹敎授팀에 依해 高靈郡 高靈面 池山洞地區 古墳群 發掘地域 第三十二號墳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이제까지 各地區에서 出土된 투구에 比해 前例없이 特異한 模樣을 지니고 있어 투구 史上 매우 注目되는 形態와 製法을 간직 하고 있다。즉 그의 模樣을 살펴보면 표주박(瓢)을 엎어놓은 形態로서 뒷면은 둥글고 앞면으로 오면서 漸次 좁아졌다。그래서 마치 氣球를 옆으로 보는것 같기도 하고 새의 부리를 聯想케 한다。따라서 이러한 模樣을 衛角形이라고도① 한다。

頂蓋는 鐵板으로 正面 突出部에서 左右로 各 二·五센치를 감싸 모를 이루고 漸次 頂蓋로 올라가면 넓어지기 始作하다가 頂蓋에 이르면 그 幅이 楕圓形으로 마무리 된다。그리고 이 楕圓形周圍는 上半部 板鐵과 겹치는데 이는 一센치 間隔으로 廣頭釘을 박아 마무리 하였다。(圖 十二 참조) 上半部 板鐵은 너비 四·一센치로서 같은 規格의 帶鐵에 겹쳐 頂蓋에 施釘한 技法과 같이 마무리 하였고 이 帶鐵에 이어 約 三센치 程度의 板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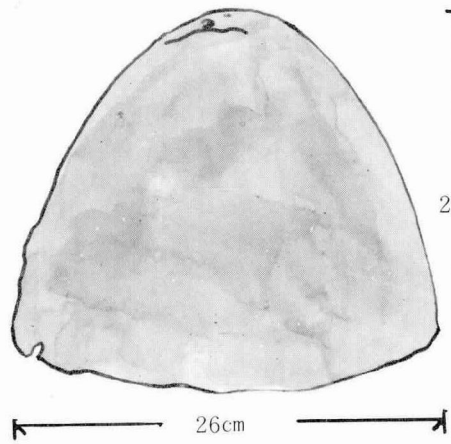


圖 10 철제 투구 실측도

下半部 帶鐵과 같이 둘리었는바 ㄱ의 施釘 間隔은 위와 같은 技法이다。아울러 正面 즉 下半部 前庇部分 左右 約 九센치 뒤로는 너비 三센치 程度의 鐵板 세겹이 돌리었는데 이는 목가리개로서 어깨에까지 내리 덮게 되었던 것이다。오랜 年輪으로 現在는 銹結되어 버렸다。(圖 十二、十三 참조) 또한 發掘當時 같은 位置에서 다른 模樣의 투구가 同時에 出土되었는바 이는 頂盖로 보이는 높이 七·五센치 지름 一〇·八센치의 半球形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길이 十七센치 너비 五·五센치의 鐵版이 銹結된 狀態로 있다。이는 오랜 年輪으로 銹結된 狀態이기때문에 그의 맨 드리는 豫測할 수 없으나 다만 片鐵로 組立된 것으로 想像해 본다。

二、갑옷(甲)

가、鐵製短甲 釜山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咸陽上栢里出土)

이 鐵製短甲은 一九七二年 三月 釜山東亞大學校 發掘調査團에 依해 咸陽郡 水東面 上栢里 古墳群에서 出土된 것이다。이는 發掘調査報告書가 이미 發刊되었으므로 詳細한 經緯에 對해서는 略하기로 하고 다만 本稿에서는 鐵製短甲에 對해서만 詳考하므로서 그 뜻을 살피려한다②。

이 鐵製短甲은 發掘하자 마자 매우 注目의 對象이 되었으니 이는 同形의 갑옷이 이미 釜山 東萊區 連山洞에서 出土되었고③ 따라서 日本에서도 많은 短甲이 出土되었기 까닭이었다。그래서 그 이듬해인 一九七三年 五月 一日부터 同月 八日까지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主催하는 全國大學博物館聯合特別展에 出品되어 學界는 勿論 뜻있는 研究學者들의 關心을 促求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낸바 있고④ 또한 今年 四月 二十六日부터 六月 二十九日까지 日本 大阪市立博物館에서 實施하는 韓日文化交流展에 出品되어 日本에서 出土된 短甲과 比較展示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같은 緣由를 지니고 있는 이 短甲에 對하여 그 形態와 製法을 同報告書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기로 한다。

圖 11 철제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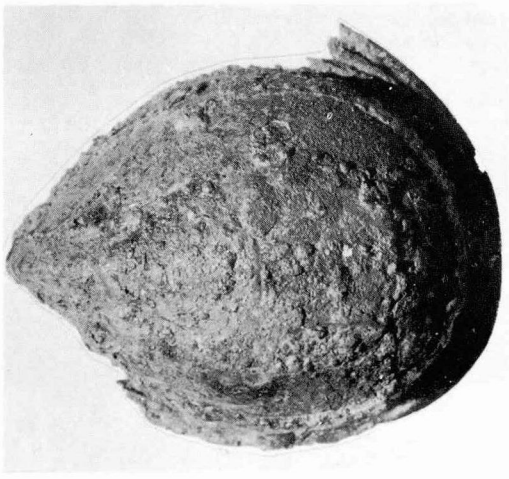


圖 12 철제투구의 정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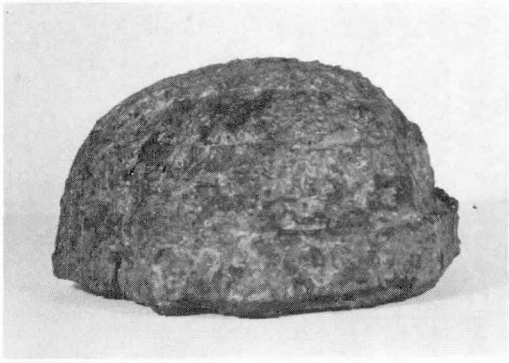


圖 13 철제투구

(1) 胸部

이 갑옷의 構成은 앞 가슴 正中에 左右 자락을 合하는 合裙式 製法이며 따라서 鐵板을 오려 組立하므로서 各部分마다의 特徵을 勘案하여 創案하였다。즉 左右 앞자락의 境遇 앞솔기를 길이 三三·五센치 鐵板을 접어 여러 조각의 連結된 片·帶鐵을 물려 廣頭釘을 施釘하므로써 매우 堅固한 一面을 엿보이게 한다(圖 十四참조)。또한 左右 앞자락은 最下段과 第三段 帶鐵板으로 이음이 없는 通板인데 反해 第二·四段은 三角鐵板을 交代로 竪立하였고 제五·六段은 方形으로 單一片鐵로하여 各帶鐵마다는 竪立한 三角板鐵을 물려 廣頭釘을 上下로 施釘하였다。特히 左側 앞자락은 背甲과 連結되어 組立되었고(圖 十五 참조)、左側 앞자락은 開閉式으로 되었다。즉 이는 옆구리를 起點으로 따로 떨어지게 하였고 따라서 여기에는 경첩을 달아 着用할때 便利하도록 여닫게 되었다。그래서 이 右側 앞 솔기가 左側 앞 솔기를 누르게 된것으로 보인다。

(2) 背部

앞 자락의 길이는 三三·五센치에 比해 뒷면의 길이는 四十六센치에 이르고 그폭 즉 너비는 四七·五센치에 이른다。그러니까 앞자락은 가슴위 목部分에까지 이르고 뒷면은 등을 연해 어깨 더버지를 掩護하기 爲해 創案된상 싶다。뒷판은 亦是 앞자락에 이어 第一·三段은 帶板이고 第二·四段은 三角鐵板을 竪立한 것으로 連綴 組立하였으며 第五·六段은 뒷판에서 마무리 하였다。第七段은 右側 겨드랑에서 始作하여 등을 逮해 左側 겨드랑을 通해 左側앞자락에 마무리 하였다。한편 上下의 周圍 솔기에는 안쪽으로 구부려 곱게 공글려 處理하였다(圖 十六·十七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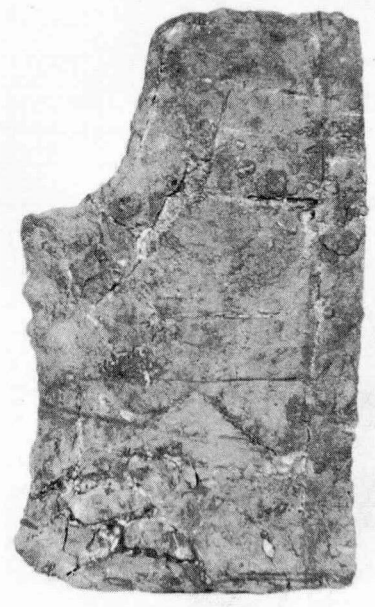


圖 14 우측 앞자락

나、鐵製短甲 大邱啓明大學博物館所藏(高靈郡 高靈面 池山洞 出土)

이미 투구條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 갑옷도 高靈 池山洞 古墳群 第三十二號墳에서 出土되었다。金鍾徹 博物館長 傳言에 依하면 이 古墳에서 다른 副葬遺物이 出土됨은 勿論이나 特히 金銅冠과 馬具가 同時에 出土되므로써 被葬者의 階級이 注目된다고 한다。勿論 詳細한 內容은 同報告書에서 詳述할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다만 갑옷에 對해서 만이 略述하고자 한다。또한 出土當時는 亦是 오랜 年輪으로 因해 銹結이 甚해 그 狀態가 매우 좋지못하여 더 狀態가 惡化되기 前에 復元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그리하여 同博物館에서는 李午憙研究員으로 하여금 이를 處理復元케 하였으니 그 作業過程을 살펴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된 遺物을 증류수를 使用하여 洗滌을 通해 鹽分과 異物質 즉 흙이나 나무뿌리등을 除去하여 이를 完全히 乾燥시킨후

둘째 淨化處理를 實施한다。즉 이는 弱化된 鐵器를 眞空狀態에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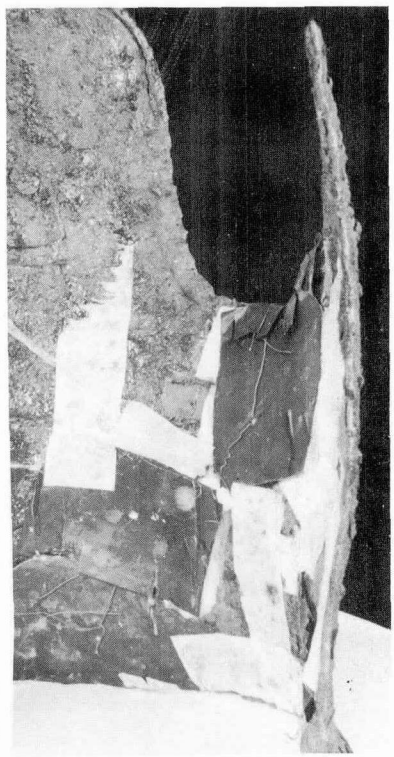


圖 15 좌측 앞자락 연결부분

용성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철기내부에 侵透시킴으로써 더이상 腐飾됨을 防止하고

셋째 파편을 接着하는데 이는 에폭스수지와 프라스틱 가루를 使用하여 缺損部分을 復元한다.

넷째 보호막을 形成한다. 즉 防銹油를 使用하여 녹을 더 쓸지 않도록 處理하는 過程을 뜻한다. 이렇게 處理된 短甲에 對하여 部分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胸部

이 갑옷도 그 構成形態는 前記「가」短甲과 別差없고 다만 三角鐵板을 使用하지 않은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가슴 正中 中央에서 오른쪽 자락이 왼쪽 자락 위에 여미게 되었고 왼편 앞자락은 뒷편과 連結固定되었다. (그림 十九 참조) 그리고 오른쪽 앞자락은 겨드랑에서 경첩을 달아 着用에 便利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이 오른쪽 앞자락의 構成形態를 살펴보면 앞솔기가 三·五센치의 너비로 가슴 正中에 길이로 대었고, 上部가 十三센치 너비에서 漸次 밑으로 퍼지면서 겨드랑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앞솔기에서 겨드랑까지는 二十六센치의 너비로 마무리되었고 겨드랑에서 아래단까지는 二十三센치 길이에서 단으로 둘려있다 여기 겨드랑 앞 단 둘림은 四·五센치의 帶鐵로 하고 마무리는 겨드랑에서 하였다. 그리고 各段의 鐵板은 모두 그 規格에 맞게 裁斷이 되었다. 즉 이 製法을 오른쪽 앞판의 構成形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第七段은 下 六·五·四段을 물고 앞솔기에 물려 어깨를 連해 겨드랑에 미치게 되었는바 특히 各段마다 連結은 廣頭釘을 約 三센치 間隔으로 施釘하였다(圖 十八、十九 참조).

오른쪽 앞자락 구성표

段	規格	構成	接着狀態
第一段	九 cm	表面	二段
第二段	五·五 cm	內側	下二段上三段
第三段	三·五 cm	帶鐵板	下二段上四段
第四段	七 cm	內側	下三段上五段
第五段	三·五 cm	帶鐵板	下四段上六段
第六段	三·五 cm	內側	下五段上七段
第七段	四·五 cm	表面	下六·五·四段

(2) 背部

등 윗부분과 양어깨 더버지는 若干안으로 욱은 模樣이며, 양허리에 미치면서 안으로 曲線을 이루고 있다. 第一段은 左側 앞판에 連結되어 九센치의 너비로 若干 아래 部分이 外反되어 右側 옆구리에서 마무리 되었다.

第二段은 第一段 上部안쪽에 五·五센치 너비로 第一段 上緣을 連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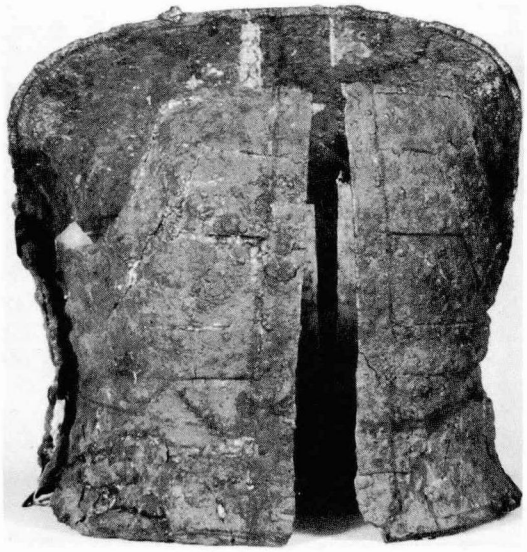


圖 16 철제단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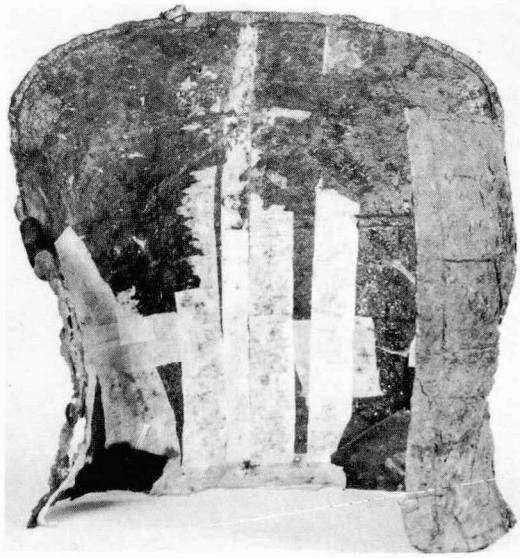


圖 17 철제단갑 좌측 앞자락 연결부분

三센치 間隔으로 廣頭釘을 박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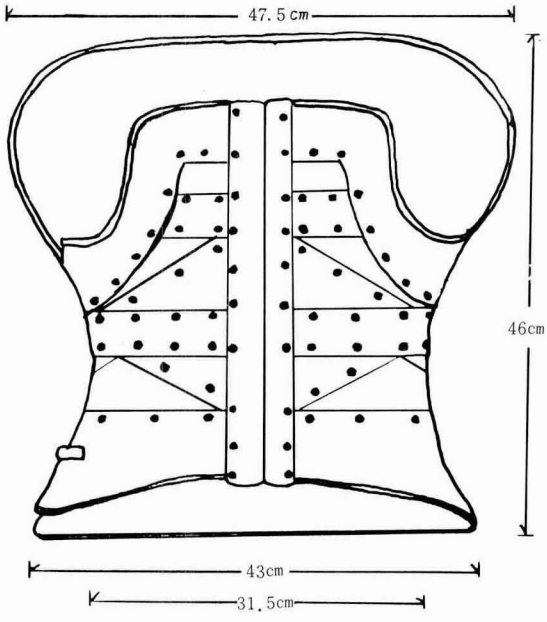
第三段은 約 四센치 너비의 帶鐵로서 下部는 二段의 上部를、上部는 四段의 下部를 各各 물려 廣頭釘으로 박았으며、

第四段은 또 안으로 대고 接着하였는데 그의 너비는 五·八센치이며 下部는 三段의 上部가、上部는 五段의 下部가 連接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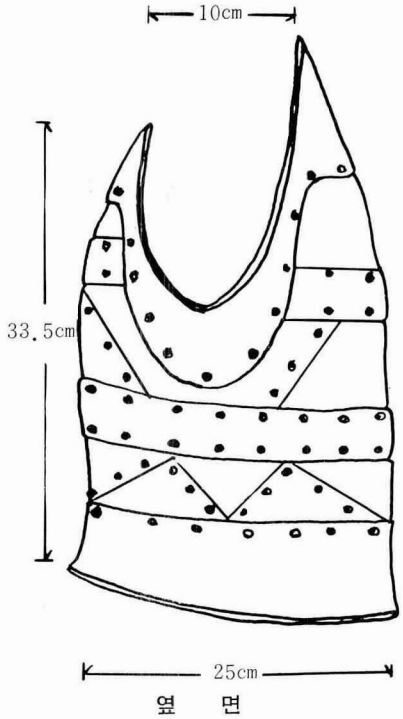
第五段은 約四센치 너비의 帶鐵로서 下部는 四段의 上部를、上部는 六段의 下部를 連結하여 三·五센치의 間隔으로 廣頭釘을 박았고

第六段은 中央 너비가 約 七센치이며 左右로는 第七段의 둥굴림에 따라 圓形을 이루었으나 아래는 그대로 直線으로 第五段 안쪽으로 連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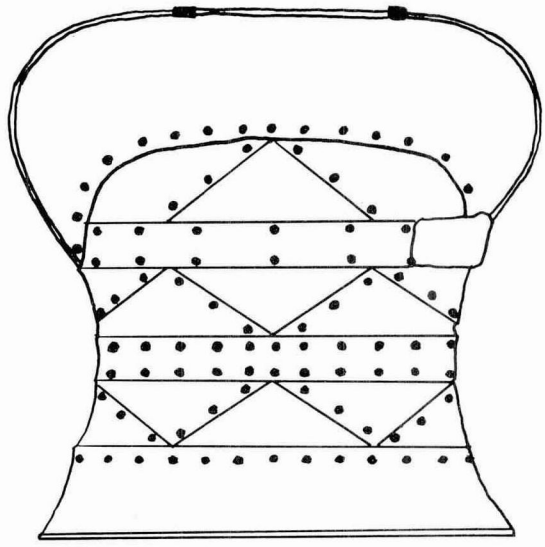
第七段은 最上段으로서 마치 길마와도 같이 크게 둥글려 第六·五·四段의 左右端을 감싸 물었는데 右側은 옆구리에서 마무리고 左側은 앞자락 四·五·六段을 거쳐 앞솔기에 接着되었으며 따라서 웃쪽 모서리 즉 벼두리는 외부로 접어 공글렸고 아랫쪽은 각단의 연결부분을 廣頭釘으



앞 면



옆 면



뒷 면

圖 18 短甲實側圖(金東鎬敎授調査報告書에 依함)

로 박았다。(圖 二十 참조)

(3) 掩膊

도톰한 鐵板으로 목둘레를 形成하고 ㄴ字形으로 周圍를 구부려 공글렸다。목둘레의 지름은 約 十二센치이고 어깨너비는 約七센치로서 높이는 約 十二센치이다。이는 목둘레를 起點으로 앞과 뒤로 둥굴렸다。즉 목둘레를 連해 어깨 앞뒤로 구부려 걸치게 하였다。또한 양 어깨 끝에는 못구멍이 있고 너비 四·二센치의 鐵片이 多量 同時에 出土된것으로 보아 肩部에 連綴된듯한데 어느 程度 貼付하였었는지는 더 硏究가 必要할 것 같다。한편 이 掩膊은 그 模樣이나 製法으로보아 양 어깨에서부터 목둘레에 이르기까지 接着한후 앞가슴과 등 正中에서 끈으로 固定시킨 것으로 짐작이 간다。(圖 二一 참조)

圖 18 철제단갑 앞면

圖 19 철제단갑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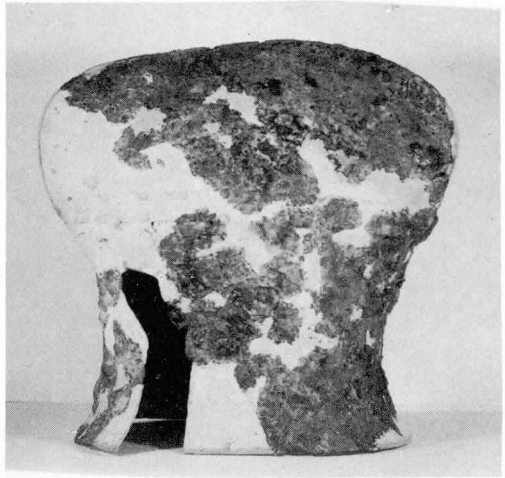


圖 20 철제단갑(배면)

三、比 較

가、투구에 對하여

이제까지 여러 形態의 發掘을 通해 많은 資料가 出土된것 만은 事實이다。그러나 이렇다할 두드러지게 내세울 資料는 對해보지 못하였으나 언제 어디서 出土 되었는지는 몰라도 前記 「가」에서 「바」까지의 투구와 出土地가 確實한 것 等이 傳存되고 있다。그중 「가」·「나」와 「라」·「마」는 그 製法上에 있어 거의 같은 形態로서

첫째 : 頂蓋處理가 同一視하며

둘째 : 片鐵組立 즉 주름식으로 構成하였고

셋째 : 帶鐵을 둘러 廣頭釘으로 施釘하고

넷째 : 前庇 즉 해가리개를 달은 形態로 造成하였는데 이는 네 점이 모두 同一한 製法이다。 다만 해가리개의 紋樣이 「가」와 「라」·「마」가 各各 다르고 또한 「나」는 角鐵이 있는가 하면 해가리개의 紋樣이 없는 半月形이다。 그리고 「다」와 「바」、「사」와 「아」는 單 하나씩 밖에 없음으로 比較를 略하기로 한다。 한편 日本에서도 眉庇付冑라 해서 紹介된 것이 있는데 그 製法이 매우 恰似한 것이 滋賀縣廳에 保管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⑥。

「、「가」의 투구 形態는 이미 日帝末葉 釜山 東萊區 連山洞에서 出土된後 當時 大邱에 居住하던 日本人 小倉武之助란 骨董蒐集家에 依해 入手되었으나 敗戰後 어떻게 處理되였는지 그 行方이 杳然한데 다만 東洋文庫의 梅原考古資料目錄에 小倉武之助 蒐集의 主要한 遺物의 寫眞과 實側圖가 保存되어 있다⑦。 따라서 그 實側圖에 依하면 頂盖處理가 十字形이고 해가리개 紋樣은 三角透彫帶線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가」의 투구는 그 앞 해가리개는 반달형이며 內部 左右와 正中 안쪽으로는 蛇紋이、 그리고 中央 正中 앞쪽에는 馬紋이 透彫되었는바 무늬에 對하여 그 뜻을 大略 간추려보기로 한다。

蛇紋은 이무기 즉 龍을 象徵한 것이며 龍은 神秘스런 民族的 信仰의 對象이 되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龍의 形像을 彫刻한 瓦當·銅器·石器類等이 있는가 하면 「龍王經」에서는 우는 것을 좋아하는 龍을 蒲牢라하여 梵鍾에 부친다던가 소리를 좋아하는 龍을 囚牛라하여 磬이나 太鼓琴같은 樂器에 붙인다고 한다。 더우기 佛家에서는 四天王의 하나로 活用하고 있으며、 또한 皇室에서는 皇帝를 龍에 比喩해 視務服을 龍袍、顔面을 龍顔等으로 呼稱하였다。 特히 軍에서는 服裝、旗幟等에 넓이 愛用하였으니 이는 그 神出鬼沒한 神通力을 發揮코자한 信仰心에서 였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이 蛇紋을 日本에서는 蛭形 즉 거머리 무늬로 解釋하고있다⑧。 언제부터 日本에서는 거머리를 무늬화 하였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머리를 무늬화 한적은 없다。 그리고 馬紋에 對해서다。 馬紋은 天馬思想에서 온것이라 믿어진다。 우리나라에서 白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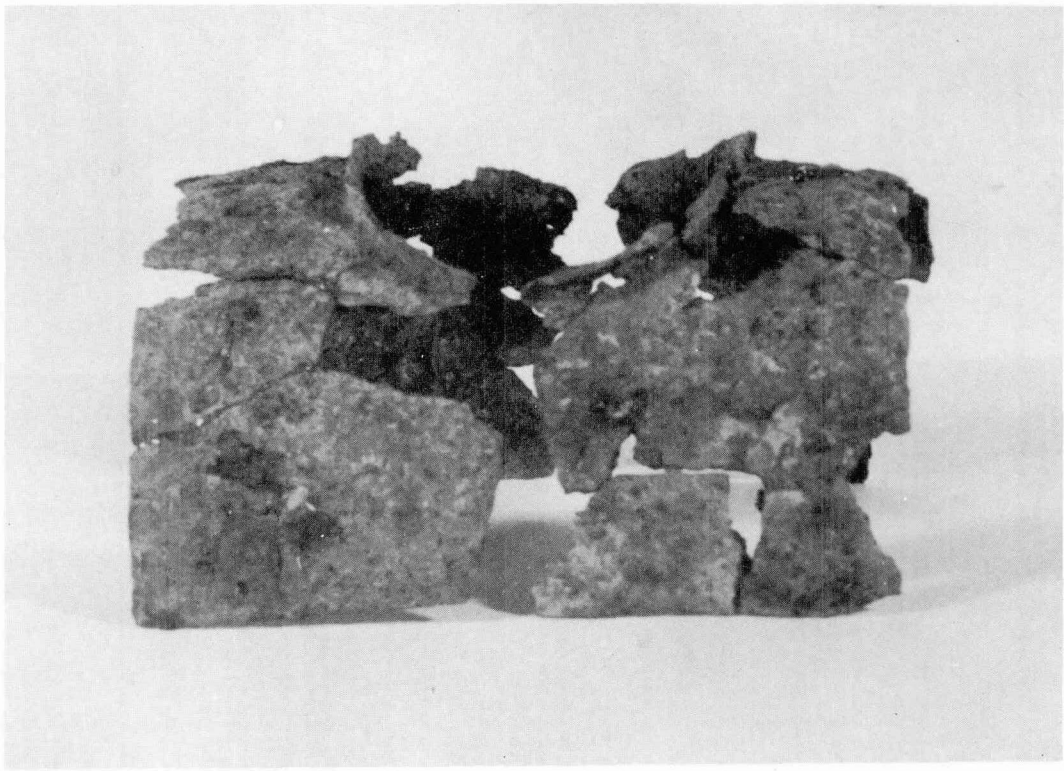


圖 21 掩　　脾

對한 說話가 傳하기는 新羅의 始祖 朴赫居世에서 비롯된다。 즉 蘇代公이 楊山 기슭 蘿井 근처에 이르렀을때 白馬가 무릎을 꿇고 울고있어 그곳에 가보니 白馬는 하늘로 昇天하고 그곳에는 紫色의 큰알이 있었는데 後에 그 알속에서 나온 이가 곧 赫居世였다⑨ 하며、그리고 天馬思想은 이미 中國의 古代神話와 文獻에서 찾아 볼수 있으니 즉 太陽神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끌거나 하늘을 힘차게 나르는 것으로、말은 神靈스럽고 偉大하다는 뜻이 있어 信仰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ㄴ、「라」와 「마」는 前記 「가」에서 밝힌바와 같이 連山洞出土 투구의 해가리개와 같이 三角紋이 施文되었는바 이는 반달형 外緣을 連해 二十二個가 帶線을 이루고 透彫된 것을 볼 수 있고、따라서 正中 앞쪽에는 左右로 길게 퍼져 透彫된 模樣인데 이는 모두 星座로 判斷된다。그러니까 해가리개 模樣의 반달은 날마다 膨脹한다는 뜻이며 이는 發展과 隆盛을 象徵하는 것으로 때의 民俗學的인 側面을 엿볼 수 있는 製法이라 하겠다。그러니까 星座나 半月의 무늬는 모름지기 民俗信仰의 希求心에서 이루어 젓으리라고 推側해 본다。

나、갑옷에 對하여

鐵製短甲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出土되기는 前述한 바와 같이 釜山 連山洞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咸陽 上栢里와 高靈 池山洞에서 發掘된 것을 꼽을 수가 있다。

이 두벌의 갑옷은 그 形態나 製法이 거의 같은 模樣으로 造成 되었음은 本論에서도 밝힌바 있거니와 다만 三角片鐵을 連綴한 咸陽 上栢里出土 短甲에 比해 段階鐵板을 그대로 裁斷하여 製造한 高靈池山洞出土 短甲의 差가 있을 뿐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銕札을 쓰기 始作한것은 西漢때 부터였다하니⑩ 이것이 鐵甲의 始初였을 것이며 따라서 이 鐵甲에 있어서도 鐵材를 利用하여 形態와 製法에 따라 名稱의 差가 있는 것이다。즉 머리에 쓰는 투구(冑)로부터 어깨를 掩護하는 肩甲、그리고 가슴과 복부를 가리는 胸鎧와 腹鎧、裳甲等인바 이는 모두 片札로 엮어 만든 札甲 그리고 鐵板을 主材로한 短甲等으로 大別할수 있고 또한 鐵絲로서 작은 고리(小環)를 만들어 서로 꿴것을 鑞子甲이라 하고 鐵環을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을 鏡幡甲이라 한다。特히 이중에서도 短甲이 現在까지 伽倻國圈內에서만이 出土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더욱 그 地域이 擴大된리라 믿는 바이다。즉 이제까지는 發掘事業이 그 地域으로 局限되었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닌상 싶기 때문이며 또한 그 製法이 그 地域에만이 制限되었을리 없기 때문이다。더우기 現在 日本에서는 이미 同形의 短甲이 出土된바 있다。이는 그 模樣이 우리나라에서 出土된 短甲이 日本에서 出土된 短甲과 同一形이라 하여 그들은 「어떻게 이 甲冑가 日本畿內 政權이 또는 그 傘下勢力으로 부터 交易이나 贈與를 通해 伽耶國에 보내졌는지 또는 當時 倭軍이 伽耶國에 侵入했을때 伽耶國人이 戰鬪에서 鹵獲해 着用하였다가 副葬한 것이 아닌가」라고 推測하고 있다⑪。勿論 이는 池山洞 短甲이 發掘되기 前 意見에 不過하다。그렇다고 同形의 短甲이 日本에서 먼저 大量 出土되고 우리나라에서 늦게 發掘이 되었다고해서 그 短甲이 우리나라로 傳播되었다고 하는 推測은 너무나 性急한 學說이라 아니 할수 없다。이제 以後 池山洞에서 出土된바와 같이 또 다른 곳에서 出土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壯談하랴。이번 短甲 年代推測定에 있어 直接發掘을 擔當指導한 啓明大學 博物館長 金鍾徹敎授와도 相互 意見을 交換한바도 있거니와 當時 出土된 遺物을 綜合分析하므로서 年代推定의 關鍵이 될것이며 따라서 그 着用者의 身分도 밝혀질 것으로 豫想되는바 여기에서는 金銅冠과 馬具가 同時에 發掘되었다는 點이다。그러니까 이 金銅冠을 着用하였을 當時의 階級이 밝혀지므로서 短甲의 年代와 着用者의 範圍가 把握될것이므로 綿密한 發掘調査報告書가 早速히 發刊될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맺는 말

이제까지 비록 出土地는 未詳이라 할지라도 거의 完形에 가까운 몇점의 투구와 正確한 發掘을 通해 얻어진 투구와 갑옷에 對하여 一部나마 살펴보았다。勿論 이 몇점의 遺物을 通해 우리나라 甲冑의 變遷을 더듬어 본다던가 甲冑史의 一面을 把握하기란 매우 힘겨운 課題로 여기는 터이며 다만 甲冑變遷의 片貌을 살핀 契機가 되었을 뿐으로 여기는 바이다。本論에서도 略述하였거니와 甲冑의 形態가 製法上에 있어 一定하지 않은 理由는 當時에도 階級이나 兵科의 差等이 顯著하였으리라 믿어진다。즉 將卒의 區分이라 던가 步兵의 것은 그 길이가 길어야 하고 騎兵의 것은 짧어야 하였으며、拳手의 것은 너그럽게 하고、槍手의 것은 좁아야 하였듯이 諸問題가 더 硏究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투구나 갑옷도 그의 겉 맨드리 조차 다 알아보지 못한 實情이다。그理由는 오랜 年輪으로 다 腐蝕하고 없는 것은 그 原形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이다。즉 甲裳이나 脛甲 그리고 신발 같은 것은 痕迹도 없는 것은 別道理가 없는 實情이고 또한 內部는 즉 안 받침은 어떠한 布地를 使用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使用치 않았는지 等이 알길이 없다。그래서 本稿는 다만 이러한 諸問題의 해결이 早速히 이루워 지기 바라는 微衷에서 敢히 一部나마 試圖하였음을 밝히면서 拙文을 맺는다。(完)

〈註〉

① 日本の名鎧展(一九六四、大阪市) 目錄解說에 依함

② 金東鎬著 咸陽上栢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一九七二年度 古蹟調査報告書)에 依함。

③ 穴澤咏光・馬目順一：南部朝鮮出土の鐵製鋲留甲冑條 朝鮮學報 第七十六輯 朝鮮學會刊。

④ 第十一回 韓國大學博物館協會主催 聯會特別展示目錄에 依함(一九七三年度)。

⑤ 國立中央博物館保存技術室 이상수先生 說明에 依함。

⑥ 兜と面鎧展目錄 古墳時代條(大阪城天守閣 昭和四十一年 十月 八日—十一月 六日)。

⑦ (가) 가梅原考古資料目錄(朝鮮之部) P、338參照 (東洋學術協會、一九六六)。

(나) 前揭註三 鐵製竪矧板鋲留眉比付冑 參照。

⑧ (前揭註三、鐵製眉庇付冑條。

⑨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三國遺事 卷一(朝鮮學會刊)。

⑩ 戎坦必備(一八一二) 甲冑條。

⑪ 前揭註三에 依하면

1 これらの甲冑は、日本畿內政權、もしくはその傘下による 勢力から交易または 贈與によって 伽耶諸國に送られた

2 これらの甲冑は畿內政權の 支持下に 伽耶諸國に侵入して 倭軍の兵士が實際に着用したもので ⓐ 倭軍との戰鬪でこれらの甲冑を 鹵獲した 伽耶人がこれを使用して自らの 墳墓に副葬したか ⓑ これらの甲冑を 副葬した墳墓者が倭人であった

라고 想定하고 있다。

또한 末永雅雄 伊東信雄著 挂甲の系譜에는 「朝鮮の挂甲資料」「短甲は日本から輸出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推測に從ひ」라 表現하고 있다。

(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